

제47호·2017년 10월 25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

물류동향

3분기 누적(1~9월) 러시아 항만 물동량, 전년대비 9% 증가

- 해양상업항만협회(Ассоциации морских торговых портов)에 따르면 2017년 9개월간 러시아 항만 처리 물동량이 전년대비 약 9% 증가하여 약 5억 8,020만 톤을 기록함
 - 러시아 항만에서 환적한 건화물은 약 2억 7,2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9.3% 증가함
 - 화물별 증가량은 다음과 같음: 석탄 약 1억 1,560만 톤(+13.4%), 컨테이너 화물 약 3,540만 톤(+13%), 곡물 약 3,110만 톤(+26.9%), 철강재료 약 2,080만 톤(-3.3%), 광물 비료 약 100만 톤(+7.25), 냉장화물 약 220만 톤(+1.8%)
 - 벌크화물의 환적 물동량은 약 8.8% 증가한 약 3억 820만 톤을 기록함
 - 벌크화물별 증가량은 다음과 같음: 원유 약 1억 8,860만 톤(+13.7%), 석유제품 약 1억 580만 톤(+0.7%), 액화가스 약 1,050만 톤(+8.8%)
 - 또한 러시아 항만에서 수출입된 화물량은 각각 약 4억 4,760만 톤(+6.4%), 약 2,670만 톤(+15.4%)이며 연안운송의 경우 약 6,290만 톤(+21.5%)을 기록함
- 극동항만의 경우, 전년대비 4.4% 증가한 약 1억 4,39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했고, 이 중 건화물이 약 8,840만 톤(+6.3%), 액체화물 약 5,550만 톤(+1.4%)을 기록함
 - 9개월간 극동항만별 처리 물동량은 다음과 같음: 보스토치니항 약 5,150만(+1.1%), 바니노항 약 2,210만 톤(-2.6%), 나호드카항 약 1,820만 톤(+4.5%), 프리고라드항 약 1,270만 톤(+9.1%), 블라디보스토크항 약 1,240만 톤(+19%), 포시에트항 약 570만 톤(-5.5%), 데카스트리항 약 850만 톤(-0.3%)

자료: <http://portnews.ru/news/247028> (검색일: 2017년 10월 14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

러시아 정부, 철도 개발에 약 25억 달러 투자

-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(TSR)와 바이칼~아무르(Baikal-Amur) 철도 개발을 위해 약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함
 - 이번 러시아 정부의 철도 개발은 국가 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극동러시아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국가 철도 역량 확대,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의 수출 증대 등을 목표로 함
- 국가 철도 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는 약 95억 달러로 이 중 러시아 철도청이 약 51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
 - 2017년에 나머지 약 17억 달러가 투입되며 2018년에 약 580km의 추가 철도 노선에 대한 위임 절차가 있을 계획임
 - 또한 약 680km의 철도 노선과 약 43개의 교차로 재건이 있을 예정임
 - 이와 같은 개발이 진행될 경우, 러시아의 약 90개 철도역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러시아 철도청은 향후 30년 동안 철도 인프라 개선을 위해 약 82억 달러가 러시아 정부 예산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함
 - 또한 본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약 6,600만 톤의 추가 화물 운송이 가능해지며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지역 산업 발전,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
- 국립고등경제대학교의 미하일 블린킨(Mikhail Blinkin) 교통경제 및 교통정책 연구원장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유럽간의 화물 유치 경쟁이 치열하며 러시아가 경쟁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철도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봄
 - 러시아 철도 현대화는 러시아 수출 기회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함
 -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유럽간 화물 운송량의 10%가 러시아를 통과하고 있으며,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역량 확대는 러시아에게 커다란 기회를 줄 것으로 봄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smi-o-ministerstve/7336> (검색일: 2017년 10월 14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

러시아 연방 총리, 극동지역 농산물 수출 강조

- 드미트리 메드베데프(Dmitry Medvedev) 러시아 연방 총리는 러시아 전략개발 및 우선과제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극동지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대해 강조함
 -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농산물 수출을 위해 새로운 농산물 터미널, 도매 및 유통센터, 가공기업, 물류기업 등이 필요하다고 봄
 - 현재 극동지역에는 곡물 및 작물 재배를 위한 거대 농장지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업 및 농식품 가공시설 등이 개발되어야 함
- 메드베데프 총리는 올해 러시아 곡물 수확량이 약 1억 3,200만 톤 이상으로 이는 높은 수출 잠재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봄
 - 또한 러시아 농식품의 해외 판매를 위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

러시아 연방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

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9231/> (검색일: 2017년 10월 22일)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9231> (검색일: 2017년 10월 22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

러시아철도공사(RZD), 운송시간 단축으로 화물 유치 나서

- 러시아철도공사(RZD)(이하 RZD)는 내년부터 일부 철도 노선의 운송시간을 15~17% 단축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힘
- RZD는 화주들이 비싼 운임에도 불구하고 트럭 운송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을 운송시간을 단축시켜 철도 운송으로 유치하고자 함
 - 현재 트럭 운송비용은 철도보다 35~40% 비싸지만, 운송시간은 50~60% 더 빠름
 - 예를 들어,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선적해 모스크바까지 철도 운송 시 비용은 TEU당 약 109,000루블 (1,873달러) 및 FEU당 190,000루블이며 약 20일에서 25일 소요됨
 - 반면 동일 구간을 트럭으로 운송 시 TEU당 2,534달러, FEU당 4,417달러의 비용으로 14~16일이 소요됨
 - * 모스크바에서 세인트 피터스버그까지 철도 운송을 하면 TEU당 49,000~55,000루블, FEU당 74,000~8,000루블에 운송 시간은 9~10시간이 소요됨
 - * 모스크바~예카테린부르크(Moscow~Yekaterinburg) 노선의 철도 비용은 TEU당 61,000루블, FEU당 92,000루블이며, 운송 시간은 5일이지만 트럭 운송 시 2일 미만이 소요됨
- RZD에 따르면, 문전(door-to-door) 서비스 및 JIT(just-in-time) 방식의 시간 관리 방식 도입과 향상된 싱글 윈도우 세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운송시간 절감 방안을 마련했고, 향후 컨테이너 화물의 고속철도 서비스(고속철도 서비스란 명칭이 좀 이상하다! 체크해 보세요)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힘
 - 현재 컨테이너 화물 운송 부담률은 트럭 운송이 88%, 철도 운송은 약 12 % 수준임
 - 현재 컨테이너 열차의 평균 속도는 시간당 8.1마일(29.16 km/h)이며, 주로 컨테이너 재배치 및 분류와 관련되어 시간이 지체됨
 - 러시아 교통부에 따르면,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의 철도 컨테이너 수송량은 240만 TEU로 전년 대비 24% 성장을 기록했으며, 현 물량 수준이 유지된다면 올해 철도 수요는 전년 대비 11% 증가한 330만 TEU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



철도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수송



자료:www.joc.com

자료: www.joc.com/rail-intermodal/international-rail/europe/russian-rail-monopoly-plans-faster-services-win-car-go_20171006.html (검색일: 2017년 10월 23일)

공영덕 연구원

051-797-4778, ydkong6053@kmi.re.kr